

북핵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

금융시장에 미치는
영향력은 제한될 듯

2013년 2월 12일

키움증권 

키움증권 리서치센터 



1. 북한 3차 핵실험 강행

- 12일 기상청은 오전 11시 57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리히터 규모 4.9의 인공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힘
- 북한의 핵실험은 2006년 10월 9일과 2009년 5월25일 1·2차 핵실험 이후 3년 9개월여 만임
- 폭발에너지는 1차 1킬로톤, 2차 2~6킬로톤 보다 훨씬 강해진 6~7킬로톤 규모인 것으로 추정
- KOSPI는 12시 06분부터 12시 27분까지 약 10pt정도 조정양상을 보였지만 이후 낙폭을 축소
- 원/달러 환율 역시 1,903.4원에서 1,906원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1,902.5원으로 안정
- 외국인 투자자들은 1,300억 원 가량 순매수를 기록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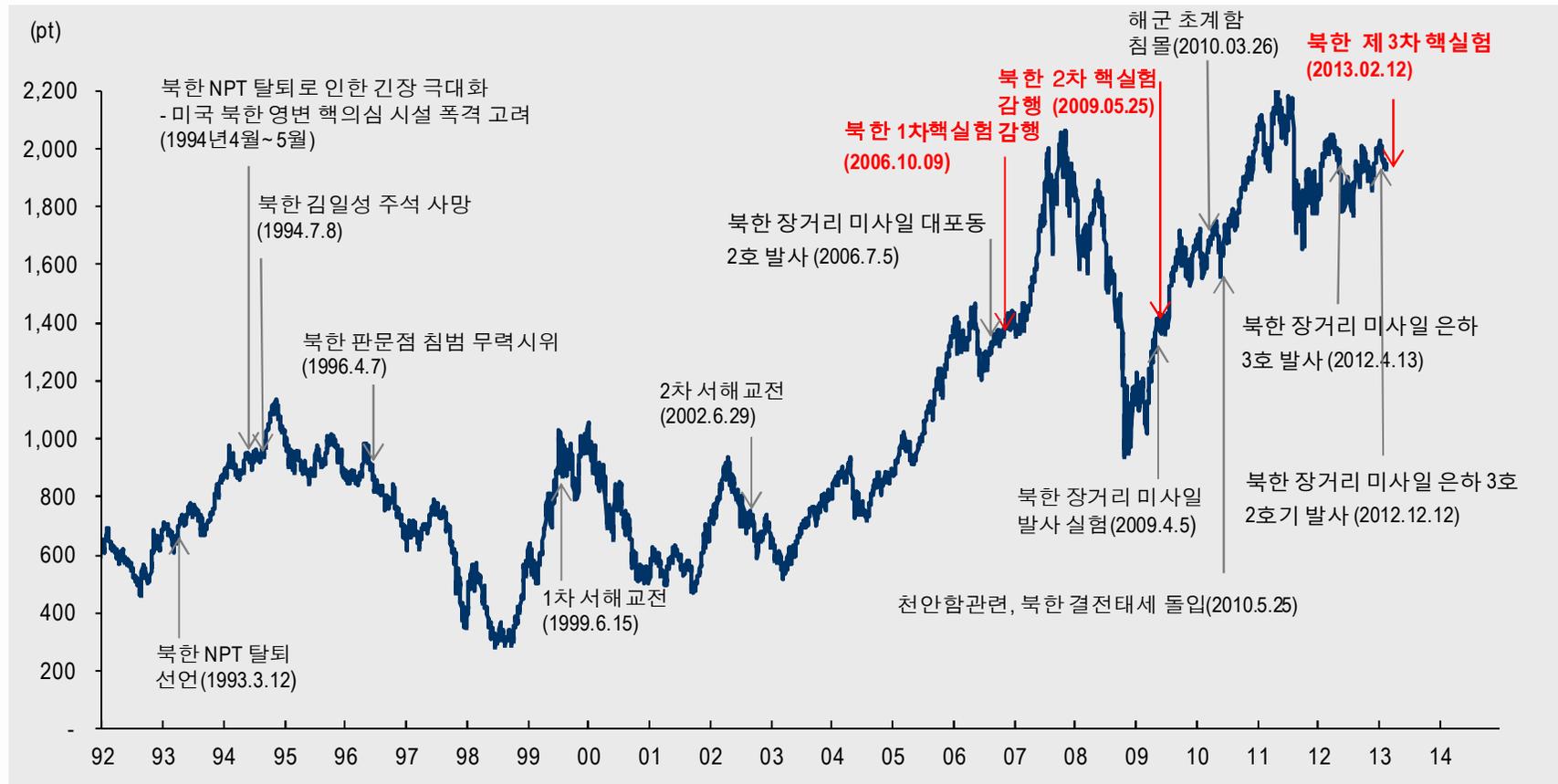


자료: KRX



자료: Bloomberg

2.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KOSP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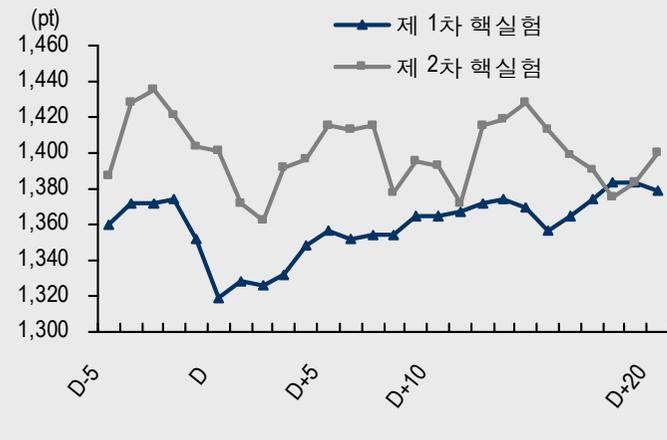


자료: 키움증권

3. 북한 1,2차 핵실험과 금융시장 반응

- 북한 핵실험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나
- 제 1차 핵실험 당일 KOSPI는 2.4% 하락했지만, 이후 빠른 회복세를 나타냄
- 제 2차 핵실험 당시에는 여파가 2 거래일 후까지 지속되었지만 역시 빠른 회복세를 나타냄

제 1차, 2차 핵실험에 따른 KOSPI 반응



자료: KRX

제 1차, 2차 핵실험에 따른 KOSPI 반응

	제 1차 핵실험 KOSPI 반응(%)	제 2차 핵실험 KOSPI 반응(%)
D	-2.4	-0.2
D+5	2.8	1.0
D+10	3.5	-0.5
D+20	4.5	-0.1
핵실험 이전수준 복귀에 걸린 시간	5 거래일	5 거래일

자료: Bloomberg

4. 과거 대북제재안과 예상 내용

- ◎ 대북 관련 유엔 제재로는 기존의 결의안에 포함된 금융제재와 선박검색 등의 권고적 조치를 일부 강행 규정으로 바꾸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
- ◎ 나아가 대북 제재의 근거인 유엔 헌장 7장(평화에 대한 위협,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) 중 42조를 인용하는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음
- ◎ 1·2차 핵실험 때 채택된 1718·1874호 결의문에는 "유엔헌장 7장 하에 행동하며 41조(비무력적 조치) 하에 조치를 취한다"고 돼 있으며 여기에 42조까지 포함되면 대북 군사조치도 가능해짐
- ◎ 즉 기존 수준의 대북제재안과 정치적 협상이 진행될 경우,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될 듯
- ◎ 다만 기존 수준을 상회하는 제재안의 상정과 중국의 반발 시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예상

	실물제재 주요내용	금융제재 주요내용	비고
1차 핵실험	군수관련 물자및 안보리가 결정하는 품목들과 대량살상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품목, 각국의 영토나 국민, 국적선, 항공기 등을 이용해 북한에게 이전될 수 있는 사치품을 막음.	모든 회원국 내 북한 자금과 기타 금융자산, 경제적 자원들을 결의안 채택일부터 즉각 동결	중국 찬성
2차 핵실험	1차 핵실험 때 적용되었던 제재안을 금융거래, 기술훈련, 자문, 서비스나 지원에도 적용.	북한에 새로운 공여나 금융지원, 양허성 차관제공을 하지 말 것을 촉구. 또한 회원국은 현재의 금융활동을 줄이도록 촉구	중국 찬성
3차 핵실험	기존의 선박 제재 및 금융제재 등의 일부 권고적 조치를 강제조치로 변경(?)		

자료: 키움증권